



언제나 어디서나 '사물과의 대화'

산문박의 詩壇

시인 오세영씨

'산으로 든다(入山)'는 말이 있다. 등산(登山)의 의미로도 읽히지 않고, 그렇다고 출가(出家)의 뜻으로도 다가오지 않는, 하지만 묘한 여운을 지닌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일을 15년째 해 오는 사람이 있다. 시인 오세영이 바로 그다. 그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든다. 그리고 그는 그 산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산사에 풍자를 쓴다.

아직 겨울이 저만치 먼데, 그는 또 산으로 들었다. 설악산 백담사로. 그러나 이번에는 재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려(?)갔다. 제4회 만해 시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8월9일 열린 제2회 만해축전으로 들쭉거리던 설악산 백담사 계곡에서 오세영 시인을 만났다. 그의 얼굴에 시인 한용운의 얼굴을 띄게 본다. 그러나 금세 어긋나고 만다. 그가 겨울마다 산사로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의 시 세계에서 불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그는 천상 시인이었다. 기자와 속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편안하면서도 명쾌한 언어로 순식간에 의문을 겨두어 준다.

"사란 모든 현실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존재인 신이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내가 주인이므로 이 비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히 만해 시문학상 수상자다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도 꽤나 오랜 시적 여정을 거쳐야 했다. 선사가 화두를 들고 번번장정하듯, 그 또한 시라는 화두와 힘겨운 씨름을 한 시인이 있었다.

"첫 시집을 내고 두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십이 년이 걸렸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던 때여서 바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방향의 시기였습니다."

첫 시집 《반란하는 빛》은 20대라는 젊음이 앞섰기에 모더니즘이라는 서구사상에 심하게 기울어 있었으며, 때론 감각적 언어를 앞세우는 과격한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문득 현학적 기교만을 앞세운 언어의 유희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의 예술성에 대해 철학이라는 것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동양사상, 특히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동양사상에서 자연을 말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바로 존

재 그 자체고, 시 역시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의 시에는 나무와 풀잎, 꽃, 물방이, 나뭇잎처럼 자연 속의 생명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동양적 관조와 사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말만이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인간의 말만이 아닌 사물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말을, 땅이 들려주는 말을, 꽃과 새와 벌이 들려주는 말을..."

하지만 그 생명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한 대상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행위는, 생명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는 일이자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시는 존재 그 자체를 예기하되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나무'를 통해 인간을 예기하는 식이죠. 은유와 상징이란 점에서 시의 언어는 선(禪)의 언어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재 의미 묻는 시인은 '자유인' 이죠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것들, 이를테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현실세계는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선(禪)은 '자유롭게 세상보기'의 다른 표현이다.

"교과서에서 이순신은 평생 한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시인은 바로 거짓말하는 이순신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얽힌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인간이 사는 길에서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시인은 그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 현실마저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시인은 진정한 시인이랄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현실 하나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 세상은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귀를 열어 인간만이 아닌 사물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사물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물이 들려주는 말을 듣는 자입니다."

오세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시인 말고도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또 붙어있다. 학문이라는 메마른 언어의 세계와 시라는 직관의 언어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일상으로부터 자신의 고유 언어를 지켜낼까? 그는 올 겨울에도 산사로 들 것이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o@buddhapia.com)



■ 오세영은

오세영은 지금까지 열린 시집과 열한권의 평론집, 한권의 산문집을 출간했으며 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42년 전남 영광 출생 △1965년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68년 '현대문학'에 '잠 깨는 추상'으로 추천 완료 △1970년 처녀시집 《반란하는 빛》 출간 △1983년 시집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로 제15회 시인협회상 수상 △1985년 서울대 국문과 교수 부임. 《모순의 숲》 출간 △1986년 '그곳' 연작시로 제1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1992년 '구룡사시편 겨울노래'로 제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 △1993년 《벼랑의 꿈》으로 제7회 공초문학상 수상 △2000년 산문집 《꽃잎우포》 출간.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수상.

■ 고은 시인이 본 오세영

"불교의 눈으로 세상보는 사람"

오세영 시인은 동양정신으로서의 불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인간존재 및 사물에 대한 구경을 지향하는 시문학 중진입니다. 그는 때로는 철학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입니다. 그 역시 많은 문학상을 받은 시인인데, 그것은 한국 근대사의 한 정맥을 잇는 민족정사와 세계정신의 보편성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아메리카 시편》에서와 같은 문명비판의 예리한 시각도 시단에서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심사평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늘이 들려주는 말
땅이 들려주는 말
꽃·새·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 백담사에서 '무금선원'으로 오르는 길의 부도 옆에 선 오세영 시인. 그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늘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 해마다 겨울이면 신사로 드는 오세영 시인.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수상을 위해 한 여름의 설악산 백담사를 찾았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자매품 BIO 항로요양침대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 ▶ 전차와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트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자매품 린지피션 BIO물침대

- 봄(가을)에 물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돛메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 902

101 싱글보로

침대의 이름 **리빙스톤** (옥스톤)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Living Stone Bed (옥스톤)

☎ (02)124-9427 / 2203-7821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장파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복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돌침대는 원적외선, 그리고 수입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